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장학월보

2012
제230호(통권449호)

4

■ 장학특집 / 스마트교육

■ 교육정보 / 이달의 교육기부

2012년 경남교육연수원 교육리더로 거듭나기





2012년도 경남 교육정책

교육 지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

꿈을 키우는 학교 · 함께하는 교육

정책 방향

1.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2. 미래를 여는 창의 인성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4. 희망주는 교육복지
5. 신뢰받는 교육행정

역점 과제

1. 기초와 기본 교육 충실
2.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3. 교육기부운동 활성화
4.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5. 국토사랑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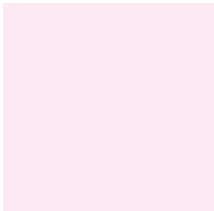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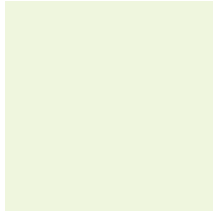
특색과제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임는 학교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2012. 4 제230호(통권449호)



02 권두언
04 교육감 동정
05 장학현장
06 장학 칼럼
08 특집 /
스마트 교육

- 희망의 시작, 큰 꿈입니다 / 고영진
-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 최현삼
- 인재대국을 향한 교실 혁명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 정순원
- 스마트교육 우수교육청 실행 계획 / 홍정희
- 온라인 수업에 활용한 소수선택교과 및 마이수교과 이수과정 운영 방안 / 이남영
- 스마트교육 모델 학교 운영 방향 / 심연돈
- 스마트교육 역량강화 연수 운영 방안 / 오현숙
- 스마트교육과 정보통신윤리교육 / 김동수

23 좋은 수업 다지기

- 도덕적가치판단력 신장을 위한 탐구공동체 수업 과정 / 서보업
- 수업에 아이디어 더하기 / 이상재
- 분수를 품은 간식 / 이경희

30 교육정보

- 이달의 교육기부
- 2012년 경남교육연수원, 교육 리더로 거듭나기 / 신종철

33 특색교육현장을 찾아서

- Happy Plus 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 성장기
- 부모님께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토요일 스포츠 교실 / 박기대
- 학습장쓰기로 자기주도적 학습력 UP! / 권동현
- Student Teacher Parents-10-10-10 행복 다짐 / 배상휘
- 사시철 생태체험, 자연이 교실이자 놀이터인 창원 김천초 / 박영인
- 아토피 Zero 보건교육으로 소규모학교 살리기 / 김나래
- 'We can do!' 위풍당당 합창부, 소리를 모으다 / 김영현

51 전문가초대석

- 올레온에어를 통한 인터넷 생방송 활용 방법 / 최재용

54 참여마당

- 교육전문직 - 교목이 우거진 학교 / 안명영
- 교 원 - 아지랑이 / 조현솔
- 학부모 - 학교는 인생의 텃밭 / 주현미
- 학 생 - 우리가 해야 할 일 / 강노미

59 향기나는 서가

- 애무, 만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 최승희

61 문화이야기

- 아! 이날로그 세레나데(Serenade)가 그림다...!! / 정윤호

65 지상갤러리

- 진정한 사랑의 영화, 로맨스 명작 '러브 어페어' / 안성민
- 함께 바라보기 / 황수희

▶ 표지사진 - 이수호(충무초등학교)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5월호 모집 기간 : 2012년 4월 20일까지 • 모집내용 : 이색교육현장,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교육미담 등 • 분량 : A4 1~4매 내의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초등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2년 4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고영진 • 총괄 :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 기획 : 초등장학담당장학관 이국식 • 편집주간 : 교육과정과 장학사 박정화
• 편집위원 : 한영자, 박준일, 이영민, 윤수영, 김민주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희망의 시작, 큰 꿈입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월 말, 미국의 명문,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인 김용 박사가 차기 세계은행 총재 후보에 지명되었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탄생에 이어 국제기구의 코리안 파워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참으로 가슴 뿌듯한 소식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은 UN, IMF와 함께 세계를 움직이는 3대 국제기구로 2차 대전 직후인 1945년 출범 이후,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직후 어려웠던 시절부터 IMF 외환위기 시까지 세계은행, 즉 IBRD의 차관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외교통상부 자료에 의하면 유엔사무국 64명, 세계은행 55명, 아시아개발은행(ADB) 46명 순으로 국제기구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은 398명(지난해 말 기준)으로 2002년 219명에 비하면 두 배가량 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동방의 작은 나라, 구호의 손길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의 인재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과거 원조만 받던 한국이 2010년 1월 OECD의 개발원조 위원회의 정식 회원이 되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용 총장의 세계은행 총재 지명은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한국경제의 성장을 세계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 몸의 크기가 달라지는 비단잉어 ‘코이’가 있습니다. 코이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8센티미터밖에 자라지 못하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서는 15~25센티미터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강물에 방류하면 90~120센티미터까지도 성장을 합니다.



사람의 꿈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큰 꿈을 품은 사람은 미래에 큰 사람이 되고 작은 꿈을 품으면 작은 사람이 됩니다. 일본의 소설가 앤도슈사쿠는 그의 책 『희상』에서 “꿈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이고 또 인생의 크기이자 미래의 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꿈의 크기가 작아져 가고 있습니다. 한 방송사가 퀴즈 프로그램용으로 어린이 1,000명을 조사했더니 공무원이 1위였습니다. 1970년대 우리 어린이들의 희망은 과학자·판사·교사·예술가·장관 순이었고 대통령도 10위권에 있었습니다. 80년대엔 교사·의사·과학자로 바뀌면서 대통령은 순위에서 사라졌습니다. 2007년부터는 연예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어린이의 수준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공무원이 그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는 막연한 꿈은 부모와 선생님, 주변 사람에 의해 다듬어지면서 형태를 만들어갑니다. 선생님과 부모님, 사회의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좀 더 넓은 세계를 가슴에 품고 자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창의와 인성을 고루 겸비한 인재를 세계가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을 기대했던 과학영재가 대학선택에서 치과대학으로 진로를 변경해서 모두가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남교육은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생각하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51만 경남의 학생, 그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인재가 아니라 글로벌 인재를 꿈꾸게 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역량에 사랑을 더해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킨 헌신적인 봉사, 오바마 대통령이 김용 총장을 세계은행총재 후보로 지명한 이유였습니다. 4월, 천지가 꽃대궐을 이루었습니다. 움츠렸던 지난 겨울동안 나무와 풀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봄이 된 지금 나뭇가지마다 꽃이 피고 새 잎이 돋아나는 것일까요? 엄동설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찬란한 봄을 꿈꾸며 겨울을 이겨낸 불꽃, 어울려 함께 피어있어 더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세계 사람들의 가슴에 만개한 꽃이 될 우리 학생들의 내일을 기다려봅니다.

2012. 4.

경상남도교육감





01-



02-



04-



03-



05-

- 01 전국 교육기부박람회 참석
- 02 경남미래재단출범식 시루떡 절단
- 03 경남교육복지관 개관
- 04 주5일수업제 학교 현장 방문
- 05 안의고 장학금 기탁 염소 할머니 방문
- 06 고 한주호 준위 동상 참배



06-



07—



08—



10—



09—



11—

- 07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 - 2012학년도 교육활동 시작
- 08 하동교육지원청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협약 체결식
- 09 경상남도과학교육원 - 일일과학체험 교실
- 10 김해교육지원청 - 2013학년도 EBS 입시정보 설명회
- 11 함안교육지원청 - 영재교육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장면
- 12 김해도서관 - 사진작가 '최민식'의 인물 사진전



12—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최 현 삼

경상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과장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 학교 폭력이다. 학생들끼리의 다툼으로, 혹은 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불행한 일들이 곳곳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해 보기 위해 각계 각층이 그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하나의 방안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학교 체육 활동의 활성화 정책인데, 건강한 육체에서 건전한 정신을 키울 수 있다는 오래되고 보편적인 믿음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감성과 인성을 중요하게 다루는 교육 활동을 제대로 전개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학교 폭력은 이 교육적 결손 환경에서 싹트기 때문이다.

입시 중심의 치열한 경쟁이 학생들로 하여금 오직 지식 습득에만 매달리게 하여 인성과 감성을 기르는 기회를 앗아가며, 국·영·수 중심의 입시 과목에 치중한 나머지, 체육, 음악, 미술과 같은 심성 계발 교육 활동이 소홀해지는 결과를 불러오고 말아 이와 같이 안타까운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 교육의 이런 모순으로 학생들은 공부하는 기계가 될 수밖에 없었고,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땀 흘리며 놀 수 있는 기회와 여유를 가지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교육 시장화 정책으로 지역과 학교 간 경쟁이 서열화되는 교육 환경 속에서는 학교 체육이 위기일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입시 경쟁이 시작된 우리의 현실에서는 학생들이 방과후에도 사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뛰어놀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체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질병 관리본부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교생 비만율은 해마다 증가 추세이고, 6개 종목으로 구성된 신체 능력 검사의 가장 낮은 등급인 4, 5등급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학생들의 체육 활동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체육은 단지 자라나는 학생의 건강만을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체육은 국민 전체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이 건강하지 못하면 국가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이렇게 학교 체육의 부진은 국가 장래의 역동성과 건강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학교 체육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운동이 생활화되어 있고, 운동을 놀이 문화로 즐기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학교 체육이 되살아나고, 학생들 사이의 갈등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운동을 통해 학생들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 아끼는 덕목을 자연스럽게 익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가다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체육 활동은 학생의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은 물론, 요즘 들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학교 체육 활동을 돌아보면 다양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고 내용도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체육 수요와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개발하여 나가야 할 과제에 직면해 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1년부터 특색과제로 ‘운동하는 학교’를 추진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그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1110달리기, 1080건강운동,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온가족 Sports Festival 등을 추진하고 있는 바, 그 짧은 도정에서도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지금,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체(體)·덕(德)·지(知)를 겸비한 전인적 인간의 육성이다. 궁극적으로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육의 본질적 목표라는 점이다. 체육 활동은 곧 이 목표에 충실한 활동이므로,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전인적 인간으로 키워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고, 학교는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학교 체육의 활성화로 그 숭고한 목표를 이루는 데 한 발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재대국을 향한 교실 혁명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정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스마트교육기획부장

1. 지식정보사회에서 학생들이 변화하고 있어 교육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보기술(IT : Information Technology)의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점점 변화되고 있다. 어느날부터 출근하는 길의 지하철에서 무료 신문을 읽기 보다는 스마트폰이나 기기를 들여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낯선 곳에서 길을 찾기 위해 누군가에게 길을 묻기 보다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화가 좋은가 아니면 바람직함을 비판적으로 논하기 보다는 이미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 아이들은 어떠한가? 기성세대의 눈에 비친 아이들의 모습은 늘 혀를 차게 만든다. 공부를 하는 것인지 음악을 듣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지식의 양에 있어서는 어른들을 초월하고 있다. 정보는 웹상에 존재하고 기억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단 말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정부는 스마트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실은 아니다. 영국의 마이클 고브(Michael Gove) 교육부 장관은 교육의 변화를 다음과 설명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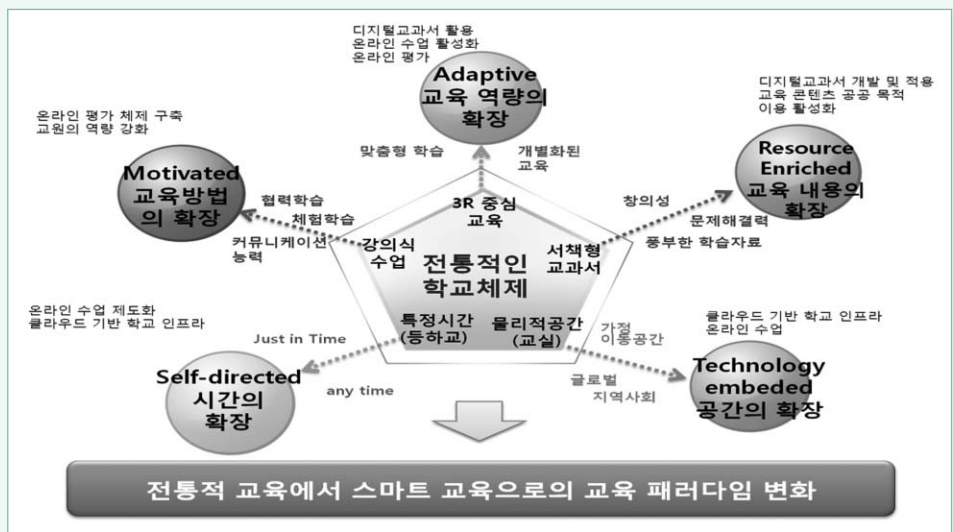
학교교육의 기본 모델은 아직까지도, 한 교사가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모델은 수세기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니다. 그야말로, 고대 아테네의 올리브 나무 그늘에서 플라톤이 설립한 최초의 "아카데미"이래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21세기의 교실에 빅토리아 시대의 교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특별히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화이트보드는 분필 먼지를 없앴고, 소파에서 개인 의자로 변했지만 지금도 교사는 교실 앞에 서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다음 20년 후까지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10년 안에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기술은 이미 교육에 깊은 수준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보이는 곳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꿈에서조차 보지 못했던 형태입니다.

2. 스마트교육이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변화를 통해 교실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별화 맞춤형 교육활동이다.

스마트교육은 스마트한 교육, 똑똑한 교육을 말한다. 또한, 스마트교육은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의 인재상을 만들어 가는 교육이다. 즉, 학생들의 삶의 방식, 공부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 이들에게 맞게 교육하지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스마트교육을 흔히 스마트기기 활용교육이란 오해가 팽팽해 있는 것 같다. 스마트기기는 교육을 대신할 수 없으며, 그저 칠판이나 실물화상기와 같은 교수·학습을 위한 하나의 도구 일 뿐이다.

스마트교육을 통해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의 변화를 통해 학교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것입니다. 시간의 확대는 등학교라는 전통적인 수업시간의 한계를 벗어나 원하는 시간에 언제나 학습할 수 있는(Just in time, Any time) 형태의 교육을 의미하며, 공간의 확대란 사람과 건물의 복합체인 학교라는 장소가 아니라 학교 이외의 공간이라도 교수·학습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것이 학교라는 의미이며, 서책형교과서 중심의 교육자료에서 정보의 바다인 웹상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지식과 전문가들의 교류를 통해 무한하며 풍부한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방법에 있어 참여자 중심의(participant oriented) 쌍방향적 교육인 협력학습, 체험학습 등의 교수·학습방법이 중시되고 “주교받는 교육”이 아니라 “함께 찾아 가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림-2] 스마트교육을 통한 학교의 변화 모습

3. 스마트교육을 위해 정부는 5개 과제를 추진하여 학교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스마트교육은 교육내용, 교육방법과 평가, 교육 환경의 변화를 통해 교육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곳, 바로 ‘교실혁명’이다. 즉, “교실혁명을 통해 인재대국”을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은 크게 5대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디지털교과서 개발·적용, ②온라인 수업 활성화와 온라인평가체제 구축, ③교육콘텐츠 공공목적 이용환경 조성, 역기능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 ④교원의 스마트교육 실천역량 강화, ⑤클라우드 교육 서비스 기반 조성 등이다.

첫째,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지식과 정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서책형 교과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수시 교육과정체제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책형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둘째, 온라인 수업 활성화 및 온라인 평가체제 구축이다.

신체장애, 재난, 질병 등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 학업공백이 발생하고, 고등학교 선택과목에 개설 인원 부족, 도서벽지 학교의 과목 전공교사 미배치¹⁾ 전국 초·중등학교 상치교사수는 865명에 달한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연보(2010))에 따른 학생의 학습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는 수업결손의 문제를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 평가체제 구축을 통해 수시진단·처방체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셋째, 교육콘텐츠 공공목적 이용 환경 조성 및 역기능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할 계획이다.

교실수업을 혁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자료이다. 그러나 현재 교원과 학생들은 전통적인 교실수업에 한하여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으나, 온라인수업이 도입되거나 디지털교과서가 개발 및 적용될 경우 현행 저작권법과는 많은 충돌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스마트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사 및 학생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타인의 저작물을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컴퓨터의 활용 확대, 특히 스마트폰 등 이동성이 강화된 정보통신기기가 급속하게 보급됨에 따라 학생들이 각종 유해, 불건전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정보통신윤리교육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1) 전국 초중등학교 상치교사수는 865명에 달한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연보(2010))

넷째, 교원의 스마트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변화된 교육환경, 변화된 학생들을 21세기에 필요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데 교원의 역량 강화와 역할 변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교원의 스마트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교육 연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매년 전체 교원의 25% 수준에서 스마트교육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체험 중심의 스마트교육 연수를 위한 교원연수시설을 고도화 해 나갈 계획인데, 시도교육청 별 스마트교육 체험관은 구축·운영하고, 교원양성대학 등의 교수학습센터 인프라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각급학교에 스마트교육 지원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자 한다.

다섯째, 클라우드 교육 서비스²⁾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통합적인 교육정보서비스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내 무선 인터넷 환경으로 구축하고 정보보안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풍부한 교육자료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갈 계획이다. 특히, 에듀넷을 기반으로 민간과 공공기관 및 개인의 우수한 콘텐츠가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콘텐츠 오픈마켓³⁾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 클라우드 교육서비스는 교육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서버에 저장하여 이용자들은 일반PC,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어느 단말기에서도 활용 가능한 컴퓨터 환경을 말한다.

3) 오픈마켓(Open Market)은 열린장터 또는 온라인 장소라고 표현되며 기존 시장과 달리 중간 유통의 과정을 생략하여 지식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매매하는 장소를 말한다.(위키백과사전)

스마트교육 우수교육청 실행 계획



홍 정 희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직업과 장학사

경남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스마트교육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스마트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스마트교육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교실수업개선’과 ‘학습자의 학습선택권 확대’를 실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다.

경남교육청은 2015년 전면 시행하는 스마트교육을 위해 ‘4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고, 올해 스마트교육 우수교육청으로서 스마트교육의 모델 개발 및 시범 적용을 통해 스마트교육의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2년 스마트교육 확산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교육 모델학교 운영을 비롯해 ◆온라인수업 활성화 ◆교원의 스마트교육 실천역량 강화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스마트교육용 앱 개발 등 5개 사업이며,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스마트교육 모델학교 운영

경남교육청은 최첨단 스마트교육 모델학교 2개교를 운영한다. 스마트교육 모델학교는 자체 예산과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을 합쳐 교당 2억 7천 5백만 원의 지원금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컨설팅을 받아 스마트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게 된다.

스마트교육 모델학교는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다니지 않고 교과서와 참고서, 공책, 필기구 등이 담겨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다. 디지털 교과서는 전자책이 아니라 일종의 콘텐츠인 셈이다. 교과서 기능과 함께 다양하고 역동적인 멀티미디어 자료, 자기주도학습에 필요한 참고서와 문제집, 각종 사전, 전문가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웹 기능, 학습관리와 평가 기능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면 각자의 흥미에 맞는 콘텐츠를 골라 학습하고 수준별 학습과 진단평가를 활용해 맞춤형 공부를 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모든 디지털 교과서 내용이 인터넷 서버에 저장되는 기술 방식으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내용을 PC나 태블릿PC, 스마트폰, 스마트TV 등으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스마트교육 모델학교 외에도 경남교육청은 지난 2008년부터 미래교실 구축 사업을 시행해 현재 37개교에 무선망, 전자칠판, 태블릿PC 등 유비쿼터스 기반 교실을 구축했으며 올해는 10개 학교에 총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교실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 온라인수업 활성화

스마트교육을 통한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 온라인수업이 활성화된다.

전학이나 휴학 등으로 학적이 변동되는 학생이 학교간의 교육과정이 달라 정상적인 이수가 어렵거나 소수의 학생들만 선택해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 온라인수업을 통해 학점을 인정해준다. 또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업 결손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병원학교 온라인수업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 경상대병원, 국립부곡병원,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수업은 온라인학급 답입의 관리 하에 화상교육을 실시하고 다시보기, 질문하기, 평가 등을 통해 학교 밖에서 교실수업을 실시한다.

또,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EBS활용 사회통합 교육멘토링을 비롯해 유명강사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 사이버가정학습인 '새미학습', '새미평가' 운영을 활성화해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과 관심에 맞는 보충·심화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교원의 스마트교육 실천역량 강화

달라지는 교육환경, 미래의 교육체제를 대비하기 위해 교원의 스마트교육 실천역량을 강화한다.

경남교육연수원에 무선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의 첨단 연수실을 구축하고 스마트교육 마인드 함양 및 역량 제고를 위해 4년에 걸쳐 전 교사에 대해 스마트교육 연수를 실시한다. 올해는 스마트교육 원년으로 전체 25%에 해당하는 약 7,000명의 교사가 연수에 참여하게 된다.

또 전국 최초로 전 교원에 대한 SNS 및 스마트기기 활용능력 함양 연수를 통해 학생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다양한 교실 수업방법을 실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하는 스마트러닝 전문 국외연수는 외국의 우수한 스마트교육 사례를 벤치마킹해 교육현장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세계적인 우수 사례를 창출해 낼 방침이다.

◆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경남교육청은 스마트교육에 발맞춰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한층 강화한다.

스마트교육이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 게임중독, 사이버폭력, 사이버음란물, 개인정보유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정보화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모둠별 협동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성이 결여되는 일이 없도록 오프라인의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가정과 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인터넷 중독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학부모 대상 교육, 학생 중심의 디지털 환경 운동,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일반 가정보다 3배 이상 높은 다문화가정 인터넷 중독률을 줄이기 위해 방문 교사 교육과 다문화 학부모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 스마트교육용 앱 개발

정보 소외계층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스마트교육용 앱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공모대회와 경남스마트교육연구회 활동을 통해 학습용, 진로·진학용, 생활지도용, 문화콘텐츠, 학교정보제공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앱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스마트교육은 대한민국이 인재대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든든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스마트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교실 수업에서부터 스마트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변화를 위한 작은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바란다.



온라인 수업을 활용한 소수선택교과 및 미이수교과 이수과정 운영 방안



이 남 영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장학사

◆ 현황 및 실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시행한 이후로 학교 현장은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적 혜택에 소홀함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상존한다. 특히, 소수선택교과나 미이수교과에 대한 이수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에 예산도 지원하고 거점(중심)학교를 정하여 이수 프로그램 개설을 권장하고 있지만 시간적으로나 참여율로나 운영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평가이다. 미이수교과의 경우에는 출석수업 시에 연속 3~4시간을 운영해야 하므로 분명히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 스마트교육 환경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 활성화의 가능성

요즘 우리는 교육환경이 너무나 빠르고 다양하게 변모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컴퓨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을 즈음에 스마트 시대가 도래하여 많은 고민들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스마트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지만, 교육환경에서는 그 유용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소수선택교과를 이수하고 싶은 학생들이나 학적 변동으로 미이수한 교과를 걱정하는 학생들에게는 분명 희소식이다. 그런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입장에서 보아도 해당 교과 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기에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시점이 되었다.

온라인 수업이라면 지금까지 컴퓨터(인터넷 포함)를 이용하여 '사이버상에서 동영상 프로그

램을 활용한 대면교육'에만 의미를 두어 왔다. 하지만 스마트 교육환경에서는 학교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하면 해당 학생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수가 어려웠던 교과를 공부할 수가 있다. 다만, 학적 변동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학생의 경우에 한정된 이수 과정이지 대면교육을 대신할만한 가치나 수준을 가진 교육 프로그램일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

◆ 소수선택교과 및 미이수교과에 대한 온라인 수업 운영 방안

1. 소수선택교과에 대한 온라인 수업 운영 방안

학교교육과정위원회(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소수선택교과 이수 희망자를 조사하여 '과목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온라인상에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안내한다. 반드시 해당 업무를 분장하여 '관리교사'를 지정하고, 출석 상황 및 과제 수행 점검, 평가 실시와 처리까지의 책무를 지도록 한다. 관리수당 등은 학교운영비에 실비 편성한다(사후 정산으로 예산 지원 가능).

이는 현재 고교 과정에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방송고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소수선택교과 이수 방법과 유사한 방안이다.

2. 학적 변동에 따른 교과 미이수 학생에 대한 온라인 수업 운영 방안

학교교육과정위원회(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특정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의 희망을 받아 '과목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온라인상의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안내한다. 반드시 해당 업무를 분장하여 '관리교사'를 지정하고 이수 여부 평가 실시와 처리까지의 책무를 지도록 한다. 관리수당 등은 학교운영비에 실비 편성한다(사후 정산으로 예산 지원 가능).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e-경남교수학습지원센터(새미학습)'에 필요한 교과목별 콘텐츠를 구축하여 현재 단위학교 또는 거점(중심)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이수교과 이수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남은 과제들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 사항은 콘텐츠 개발 여부이다. 특히, 중학교는 2013년부터, 고등학교는 2014년부터 전면 개정된 교과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목별 콘텐츠 개발'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선은 기개발된 자료를 활용하여 가능한 정도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교육 모델 학교 운영 방향



심 영 돈
김해 주석초등학교 교장

1. 들어가며

지식정보사회가 고도화 되면서 모바일 및 스마트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매체와 기기의 출현은 기존의 획일화·표준화된 교육방식을 개인별 맞춤형 교육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본교는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 2년에 걸쳐 교육과학기술부 요청 스마트교육 모델 연구(정책연구)학교로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 과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스마트화된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연수를 통한 스마트러닝 기반의 인적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학습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 적용하고 이러한 수업모형을 적용했을 때의 효과를 분석하여 스마트교육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2. 주요 추진내용

가. 교수·학습 여건 조성

항 목	운영 계획
무선인터넷환경조성	• 모든 교실 및 학교 구내에 AP 설치
스마트 패드	• 4~6학년 학년당 2학급분 확보 : 3개 학년X60대=180대 • 1교사 1기기 확보 : 교원용 54대
천장형 TV	• 15개 학급 43인치 이상 천장형 TV로 교체
스마트교실 조성	• 4~6학년별 스마트교실 각 2실 설치 : 3개 학년X2실=6실 • 43인치 이상 스마트TV 설치 • 스마트패드 보관함 5식 설치

교육공동체 소통활성화를 위해 SNS를 활용하여 트위터 및 페이스북에 학교 계정을 개설하고 학생-학부모-교사 간 소통의 장을 만든다. 또한 스마트교육 T/F팀을 구성하여 교육정보 공유와 연수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나. 교수·학습 모델 구안 및 적용

4·5·6학년층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스마트교육에 적합한 학습 주제를 선정한다. 교과별 주제에 따라 학습자 중심형, 자기주도형, 상호협력학습, 지능형 학습, social network 활용 수업모형을 구안 적용한다. 수업 적용 결과를 분석하고 교수·학습 과정안에 반영하여 일반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다. 스마트러닝 적용 창의적 체험활동 전개

구 분	운 영 계 획
동아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릅누리 동아리 : 정보통신윤리교육, 저작권, 네티켓 실천 • 스마트 영재학급 : 스마트기기 활용을 통한 교수·학습 전개
진로 멘토링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탐색활동, 자신의 미래 직업과 관련있는 전문가와 SNS, 트위터를 활용하여 멘토링제 실시
스마트 현장체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교실 밖의 현장에 나가 직접 체험

라. 가정과 연계한 스마트러닝 교육활동 전개

구 분	운 영 계 획
스마트 안전학교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예방 앱(application) 활용 교육 • SNS를 통한 학부모 상담활동과 생활지도 실시
토요학습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른 자기주도적 토요온라인학습 콘텐츠 제공 - 재미학습, 맞춤 콘텐츠를 활용한 예·복습으로 학력향상
온라인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성취도평가 실시로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 형성(재미학습활용)

마. 스마트 다문화교육 전개

대 상	운 영 계 획
다문화가정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용 앱을 이용하여 한국어 지도 • 교과 학습 보충 지도 및 문화와 생활지도

3. 나가며

본고는 향후 스마트교육에 최적화된 물적 표준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자기주도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여, 이제 막 시작된 초등학교 스마트교육의 방향 모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스마트교육 역량강화 연수 운영 방안



오 현 숙
경상남도교육연수원 장학사

I. 들어가며

2015년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태블릿 pc, 스마트폰의 급격한 확산과 무선인터넷의 발전 등 차세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 강화에 비전을 두고 경남교육연수원에서는 스마트교육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교육의 이해, 스마트 미디어 활용법, SNS 와 스마트 디바이스의 교육적 활용, 스마트기기 활용 관리자 연수 등 실습과 체험 중심의 집합과 원격연수로 편성·운영되는데, 스마트교육 연수 기반구축 현황 및 연수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스마트교육 연수 기반 구축 상황

1. 스마트교육 연수 기반 시설 현황(강의실 시설 및 스마트 기기 보유 현황)

구분		PC	빔프로젝트	전자칠판센스	전자칠판	노트북	태블릿 PC	E-BOOK 제작용솔루션
컴퓨터실	1층	43	1	1	1	3	70	1
	2층	45	1	1	1		65	
강의실	분관	20	13	12	1			
	교학관	10	3	6				

2. 교원의 스마트교육 실천 역량 강화 방안

가. 교원연수시설의 고도화(스마트기기 활용 연수 기반 구축)

- 경남교육연수원 내부망과는 별도의 무선인터넷망(WIFI) 구축
- 스마트기기 활용 연수 기반을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 클라우드 시스템을 적용한 원격학습시스템 구축
- 클라우드 시스템에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응용프로그램과 e-BOOK관련 자료를 탑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나. 교원연수 방법 개선

1) 연수교재의 디지털화

- 2012년 14개 과정, 2014년까지 수정·보완하여 연수과정의 교재 50% 이상 디지털화

2) 연수방법의 다양화

- 원격연수 및 기타 연수 비율을 20%~50%까지 확대 실시

3) 액션러닝 적용 및 연수수요자 요구 확대

- 교과연구회 활용을 위한 스마트기기 활용 외 14개 과정

다. 스마트교육 직무연수 실시

-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시 교육과정에 2시간 이상 반영
- 교육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스마트 기기 활용 연수과정 개설
- 스마트 기기 활용에 대한 관리자의 마인드를 제고위해 관리자 과정 개설
- 클라우드 서비스 및 디지털 교재를 활용한 연수시간 증대

IV. 맺으며

학생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여 창의적 글로벌 인재를 육성시키는 주체는 교사이다.

스마트 기기에 대한 교사의 끊임없는 연찬이 경남교육의 중점과제인 『온라인 수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스마트교육의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스마트교육과 정보통신윤리교육



김 동 수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직업과 장학사

1990년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정보화교육은 학교현장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ICT활용교육의 도입으로 교실 환경은 교단선진화 기기들로 교수와 학습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 왔다. 이제 스마트교육이라는 새로운 정보화교육으로 또 다른 변화와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의 변화 속에서 예나 지금이나 항상 강조되어 온 것이 정보통신윤리교육이다.

스마트교육시대에서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의 중요성은 더 강조되어 오고 있다. 2012년 경남의 스마트교육과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의 내실화와 역량 강화에 있다.

과제1. 정보통신윤리교육의 내실화

■ 인터넷 과다사용 대응력 강화

- 인터넷 이용습관 전수 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3월)
- 인터넷중독 학생에 대한 학교별 지도, 상담계획 수립
 - 인터넷 주의사용군에 대한 상담 책임교사제 운영
 - 인터넷 고위험군의 인터넷 레스큐 스쿨, 전문 상담치료 참여
- 유관기관과 연계한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프로그램 활성화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시

-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정보통신윤리교육 7시간 이상 실시
- 인터넷중독 예방,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저작권보호 교육 포함

- 교과서 기반 정보통신윤리 온라인 콘텐츠 활용(10개 학년, 7개 과목)
- 가정과 연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 학부모 대상 정보통신윤리교육 권역별 순회 실시(2회)
 - 학부모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보급

■ 학생 자발적 건전 사이버 문화 조성

- 학생 주도적 디지털 환경운동(infollution ZERO) 참여
- 정보통신윤리 관련 교내 동아리 개설 및 활동 지원
- 학칙, 생활지도규정 등에 건전한 정보문화 이용 내용 반영

과제2. 정보통신윤리교육의 내실화

■ 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 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 정보통신윤리 관련 교내 자율연수(2시간) 실시
- 경남교육청 주관 정보통신윤리 순회교육 3회 실시
- 정보통신윤리교육(300명), 인터넷 중독상담(400명) 등 연수 다양화

※ 인터넷중독에서 다문화가정 지키기

- 목적 : 일반가정보다 3배 이상 높은 다문화가정 인터넷 중독률 완화
- 다문화가정 방문교사 교육(296명, 4월)
 - 방문교사 대상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교육 실시
 - ⇒ 가정방문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 학부모 상담, 교육 실시
-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연중)
 - 대상 :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학부모
 - 창원, 김해도서관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정보통신윤리교육 신설 운영

■ 정보통신윤리교육 연구학교 운영

-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모델 개발(고교)
- 정보화사회 속의 사회성, 인성 함양 프로그램 모델 개발(초등)
 - 사이버가정학습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 진로 카운슬링 활동
 - 교육기부 사업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멘토 - 멘티 활동
 - 교과활동, 진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에 전문가 초빙 강연

도덕적 가치판단력 신장을 위한 탐구공동체 수업 과정



서 보 업
의령 남산초등학교 교사

1. 깊이 있는 읽기

탐구공동체 수업은 이야기 형식으로 된 교재의 깊이 있는 읽기로부터 시작된다. 깊이 있는 읽기란 교과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진술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추측하며 읽는 활동이다. 이러한 읽기 활동은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동기유발을 시켜주며, 교과서나 이야기 책 속의 등장인물들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등장인물의 사고 활동에 대한 점진적 내면화를 가능하게 한다. 학생들의 능동적인 읽기활동을 위해서 교사의 다양한 형태의 예화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교사를 모델링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읽기 전략을 구성하기 위해서 교사의 시범이 필수적이다.



〈교사의 다양한 예화 제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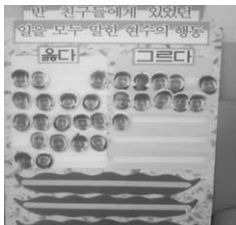
2. 토론주제 만들기

토론 주제 선정을 위해 교사는 학생들이 읽기를 통해 궁금해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것들을 서로 질문하게 하고 이러한 질문들을 정리한 뒤, 협동 작업을 통해 토론 주제를 선정하게 한다. 주제가 선정된 후에는 어떤 활동을 통해 토론을 진행할지 생각하게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읽기 활동을 통해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학생들의 경험과 연관시켜 유의미한 문제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효도’라는 개념적인 가치를 가지고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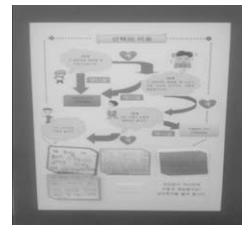
론을 진행할 때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된 예화에서 본인이 겪고 있는 비슷한 상황을 유추해 내고, 그것을 협동 작업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라는 함의를 도출하게 한다. 그런 후에 토론을 진행할 경우 학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아진다.

3. 공동체 다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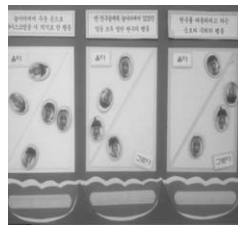
공동체 내에서 선정된 주제에 관한 가치 갈등문제를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다. 우선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도덕 수업 시간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생기는 가치 갈등 상황을 함께 고민해보고 해결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이 필요하다. 가치 갈등 상황이 주어지면 가치 선택지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정하게 한다. 그 후에 가치 미로를 통해 자신이 선택한 가치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옳은지 생각해보고, 모둠 활동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활동은 구성원들의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생각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책임감도 커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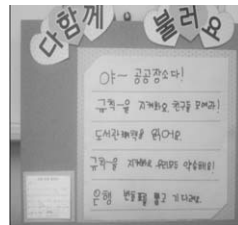
〈개인 가치 선택판〉



〈가치 미로〉



〈모둠 가치 선택판〉



〈활동 의지 확인판〉

4. 심화반응 고무시키기

탐구 활동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이야기, 시, 그림 등의 표현활동으로 나타내거나 무언극, 역할놀이 등의 심화된 반응으로 표현하게 한다. 활동 주제와 내용에 따라 더욱 다양한 활동으로 변형해 활동할 수 있다. 처음에는 교사가 제시하는 방법들로 표현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탐구 공동체 내에서 창의적인 표현방법으로 표현 활동이 확장되어 간다. 이 활동에서는 학생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칭찬과 격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결국 탐구 공동체 활동을 통한 도덕 수업은 함께 탐구 질문을 만들고 합당한 판단을 연습해 나가는 과정이다.

수업에 아이디어 더하기



이 상 제
진주제일중학교 교사





하나. EBSe 활용하기

다양하고 재미있는, 그래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 EBSe 프로그램이다. EBSe가 제공하는 맞춤형 자료로 수업시간은 더욱 알차고 짝 찬 느낌을 갖게 되었다. 다음은 수업시간과 자투리 시간에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적용 예이다.

영역	시량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화면	구성 내용	적용 예
4 Skills	20분	방과후 중학정규과정A (Level 5-1,2)		Get started Key Expressions Listen & Speak	자료 다운로드 후 인쇄 중3 2학기 2차고사후 수업시간 수준별 중반
4 Skills (원어민)	20분	방과후 중학정규과정B (Level 5-1,2)		Get started Learn Key Expressions Pronunciation Practice & Listen Again	원어민이 영어로 진행 수준별 수업 상반
어휘	3분	생각하는 영단어		다양한 이미지 영상을 활용한 단어의 어원	동기부여 및 수업후반시간이 남을 때
읽기	5분	어원에서 배우는 구동사		어원을 활용한 주요 구동사 익히기	수업 중 자투리 시간
듣기 읽기	20분	영자신문 Teens		Headline News Entertainment, Sports International News (일주일마다 업데이트) MP3듣기, 해석 제공	영어동아리 활동 시간 학습지 만들어 중요단어 채우기 듣기활동 후 독해(스 스로 학습 유도)
듣기	2분	Fun Fun Listening		흥미로운 주제를 통한 듣기 자료	Listening할 때 들리는 단어 문구 적기→자막보고 Shadowing하기
말하기	5분	샘의 English Party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표현 정리 및 플래닉	시험보고 난 후 영어 수업 지루해 할 때

넷. Question Notebook으로 원어민과 친해지기

잘 듣고 말을 잘하려면 원어민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되는데 고작해야 원어민과 1주일에 1시간, 그것도 한 학생에게 돌아가는 시간은 많아야 2~3분 정도이니,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Question Notebook,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이럴 땐 어떻게 영어로 말할까?’ 궁금하면 어설픈 영어나 우리말로 메모(휴대폰, 스마트폰 메모 권장)해 두었다가 원어민 수업시간에 질문하도록 했다. 하루에 1가지씩 질문을 적어 수업시간에 원어민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듣고 다시 반응하는 활동은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향상을 위해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Q & A’ 는 다시 교과서와 관련지어 체계적인 지도가 되도록 하였다. 다음은 교과서 그림 관련 ‘Q & A’ 자료의 예이다.

일반적인 수업진행	Q & A Work Book 활용 수업진행		
그림에 대해 질문(교사)→ 전체대답(학생)→개인별 질문/대답	대답 제시(교사)→그림과 관련된 질문(학생)→ 다양한 대답 제시(교사)→ 다양한 질문(학생)→예시 질문 제시(교사)→ 짝/모둠활동으로 Role Play→ 그림 묘사하기(Writing)		
			
Q & A 표지	그림묘사 완성→ 완성된 문장이 대답이 되는 질문 만들기	질문 Drill 연습 →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	Drill한 그림 제시→ Q & A로 묻고 답하기

다섯. 글을 맺으며

영어교수학습 자료들이 On-line상에 수도 없이 널려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수준, 교실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실패해 왔던 경험이 있다. 보기에 그럴듯한 자료가 아닌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 순간순간, 뿌듯한 느낌, 내가 진짜 영어선생님이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참 좋다.

분수를 품은 간식

- 전기 조리 기구를 이용한 분수 개념 익히기 -



이 경 희

경남헤림학교 수석교사

◆ 우리 학생들은 분수에 대한 개념을 왜 많이 어려워할까요?

사람은 사회 속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학적 지식이나 기능이 필요한데 수학에서 다루는 대상은 다소 추상화하여 얻어지는 개념이다. 이러한 추상성은 수학이 사고력, 즉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특히 개인차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배우고 익히는 데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개별화된 교육계획에 의해 필수적으로 체득해야 하는 영역으로 제시된다.

수학의 추상성은 그와 상반되는 수학의 구체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해야만 접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학교 및 가정생활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여러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는 기능적 수학기술을 익혀야 하며 분수의 개념은 우리의 일상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추상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이다.

◆ 집중만 잘하면 어렵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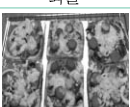
우리 학생들은 종종 새로운 학습내용에 대한 학습준비도의 미흡으로 인해 학습자가 새 학습과제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거나 너무 어렵게 느껴 오랫동안 주의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주의 집중의 유지가 되지 않는 결과, 학습의 초기 단계로의 진입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일이 발생한다.

집중을 잘 하기 위한 수업내용 요인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첫째, 수업 내용이 학습자들의 수준에 비해서 어렵지 않고 알맞은 때, 둘째, 수업내용의 양이 적당할 때, 셋째, 새로운 자극으로 호기심을 자극할 때 주의집중 강도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집중할 수 있는 으뜸 활동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은 누구에게나 생활의 기쁨을 주는 요소일 것이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며 다양한 간식 만들기 활동이 수업에 집중하는 시간을 늘이고 과제 활동에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단순히 조리하는 것 보다 전기 기구를 이용해 모터가 돌아가고 열을 가해 액체를 부어 고형물이 되는 조리 과정 속에 식재료의 변화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흥미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내가 만드는 간식은 과연 분수를 품을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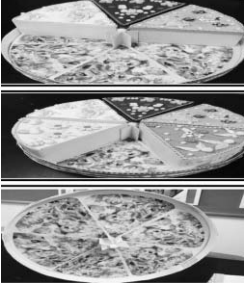
조리기구	간식명	제재	중심활동	준비물	비고
 핸드믹서	 쿠키 반죽	나누기, 합치기 알기	다수의 달걀을 풀어 1개의 쿠키 반죽 만들기	밀가루, 달걀, 우유	믹서날이 단단히 고정되게 하고 반죽을 1개로 붓침
 붕어빵틀	 붕어빵	분수 1/2 알기	반죽을 틀에 2/1 씩 나누어 부어 붕어빵 굽기	밀가루, 소금, 팥	반죽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 도록 2개로 나누어 붓도록 함
 와플팬	 와플	분수 1/4 알기	반죽을 팬에 4/1씩 나누어 부어 와플 굽기	와플 가루, 생크림	적당한 양을 부어 와플이 4개 로 정확히 나누어지도록 함
 미니 오븐	 피자	분수 1/6 알기	피자재료를 오븐 에 넣어 6/1씩 나누어 굽기	식빵, 피자 소스	간격과 열을 맞춰 6개로 나누 어지도록 함

◆ 심화활동으로 하는 조각 피자판 완성하기 게임



*** 피자판 완성하기 게임***

1. 두편을 나누어 팀을 만든다
2. 돌림판을 돌려 지시한 분수를 보고 식재료 이름을 퀴즈로 듣고 맞힌 팀이 조각을 가져간다
3. 조각을 먼저 끼워 분수를 완성한 팀이 이긴다.



◆ 내가 만든 간식은 분수만 품은 것이 아니었네요!!

주어진 모양을 만들면서 학생이 유의미한 수학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학은 어느 교과보다 계통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학생 발달 수준에 따른 위계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계통성을 이유로 발달 수준이 낮은 우리 학생들의 수학 학습은 기초적인 내용에만 머무는 경우가 있으며 더 나아갈 수 없는 한계로 오해받기도 한다.

하지만 수학의 계통성이 효율적인 교수 위계를 안내하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 아이들도 분수의 개념을 충분히 익힐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진다.

조리 기구를 이용한 간식 만들기 활동으로 알게 된 분수의 개념은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도 덩어리 맛 보게 하고 여러 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간식을 이용하여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며 조각을 잘 조합해서 주어진 모양을 만드는 것은 학생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생명을 살리는 교육기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교육기부를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육기부를 실천하여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기부 인증서를 받았다.

■ 응급처치법 교육

- 67개교 5,287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 실시
- 응급처치법 강사 82명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
- 심폐소생술, 골절처치, 기도폐쇄 등 교육 실시
- 안전장비 대여(CPR 마네킹, 자동제세동기 등)
- 수료자에게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수료증 발급



■ 응급처치 경연대회

- 학교대표 72팀 485명이 경연대회 참가
- 기량이 우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급별 시상
-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산악안전, 아마추어무선, 친환경 수세미 체험 등)

■ 지역사회 연계 교육기부

- RCY 단원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응급처치 홍보(300개교 19,000명)
- 청소년적십자 경남지도교사협의회와 연계하여 응급처치 홍보(교사 987명)
- 경남안전강사봉사회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학교 응급처치 보급
- 창원시가 후원하는 청소년문화존에서 안전체험부스 운영



2012년 경남교육연수원, 교육 리더로 거듭나기



신 종 철

경상남도교육연수원 연수기획부장

세상은 광속에 비유될만큼 빠르게 진화하고 이 속도에 맞추어 교육이 제대로 움직여 주길 우리 사회는 요구한다. 미래 변화를 예측하여 한 발 앞서 교육을 준비해야 함이 우리 연수원의 역할이지만 때론 그 흐름을 따라가기에도 급급한 면이 없지 않음을 반성하며, 교육 현장의 변화를 주도할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2012년 우리 연수원의 주요 연수 과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교육 전문가 역량 강화 연수

교원 연수는 크게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자격연수는 2012학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연수체제 선진화 방안 체제’를 근거로 연수시간이 전년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해당 직급에 필요한 핵심역량 위주로 교육과정이 변화되었다. 직무 연수는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연수와 연계하여 초·중 등 전 교과 및 생활지도 영역에서 집합 뿐 아니라 원격 연수 방법으로 연중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2. 수요자에게 맞추어가는 직무연수

만족도 높은 연수 과정 운영을 위해 물리적, 환경적 제약 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찾아가는 연수’를 들 수 있다. 김해, 진주, 통영 지역에 초·중 각 3개교의 연수원 협력학교를 지정, 권역별 연수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연수를 위한 장거리 이동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나아가 단위 학교는 공모형 연수 제도를 활용하여 학교 자체 계획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경비를 지원받음으로써 단위학교 연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2012학년도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계획과 발맞추어 토요일직무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토요일휴업일을 활용한 연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3. 트렌드를 읽어내는 연수 기획

- 2012. 초등컨설팅전문가 직무연수

컨설팅장학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선 시점이다. 컨설팅장학의 내실화를 통한 학교 지원과 전문직의 총괄컨설턴트로서 역량 강화와 역할 제고를 위한 초등컨설팅전문가 직무연수 과정을 15시간 신설 운영한다. (3월 29일 ~ 3월 31일)

- 2012. 독도교육역량강화 직무연수

독도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에 따른 주변국간 상황 이해에 필요한 역사교육의 강화를 위해 독도 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독도교육역량강화 직무연수를 62시간 신설 운영한다. (3월 17일 ~ 6월 2일)

- 2012. 초등관리직교원실용영어 직무연수

영어교육 관련 업무 증대와 다양한 국제 교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초등 전문직 및 관리직 교원의 영어의사소통능력 신장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초등관리직영어 직무연수 30시간 연수를 신설 운영한다. (4월 17일 ~ 6월 5일)

- 2012. 스마트미디어활용교육 직무연수

21세기 학습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교육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업 역량과 전 교원의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미디어활용교육 직무연수를 30시간 신설 운영한다. (7월 23일 ~ 7월 27일) 그 외에도 경상남도교육청 스마트교육 우수교육청 사업과 관련하여 연간 7,000여 명의 교원에게 스마트교육 관련 직무 연수를 실시하고자 한다.

- 2012. 명사특강

지식기반 사회,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교원·학부모의 교육적 인식 제고를 위해 4대 권역으로 연수공간을 확보, 전국적으로 명성 있는 강사를 섭외하여 교원 뿐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연수 과정을 연중 4회 운영한다.

- 2012. 중등관리직 영어 해외연수

중등관리직영어원격 직무연수 수료자 103명 중 성적우수자 30여 명을 선발하여 여름방학 중 해외연수를 2주간 실시함으로써 중등 관리직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 연수를 혁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7월~8월)

2012학년도 우리 연수원은 교육의 본질에 바탕을 두고 시대가 요구하는, 수요자가 만족하는 품격 높은 연수를 실시하여 '알찬 연수 희망교육'이라는 바람직한 결실을 거두고자 한다. 경남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육리더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전 교원의 연수 지원에 열정과 봉사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Happy Plus 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성 정 기
마산여자고등학교 교장

- 마 - 마산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여고에서
- 여 - 여성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 고 - 고품격 특색과제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품격과 감성지수를 높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특색과제인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를 수행하기 위한 Happy plus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실용영어에 대한 친숙함을 강화하고, 자신감 고취 및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함으로써 창의·인성 교육과 아울러 입학사정관 전형, 대학수시모집 전형에 대비하고자 했다.

■ Happy plus 1. 영어실력 키워가는 노래교실 운영

가. 영어반가 부르기

창작곡 또는 기성곡에 개사를 하여 학습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반가를 정하고, 틈나는 대로 노래 부르기 활동을 하면서 영어 수업 시간에 노랫말에 담긴 영어표현과 문법 내용을 익혔다. 학교 축제 때 ‘영어반가부르기 대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나. 점심·저녁 시간 활용, 신나는 팝송 부르기

중·석식 시간 30분간, 선정된 영어노래 방송을 지속적으로 내보내어 영어전용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영어노래에 친숙해지도록 유도하고, 매월 한 번씩 영어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지정된 그 달의 노래를 부르며 가사의 주요 표현과 문법 내용을 학습하며 실용영어 실력을 향상시켰다.

■ Happy plus 2 – 바른 자세, 품격 있는 생활을 위한 발레 교실 운영

가. 왜 발레인가?

- 학생들의 자세 교정 · 체력 향상을 통해 학교 생활에 대한 행복감, 만족감을 주고자 하였다.
- 발레리나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21세기 문화적 소양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고자 운영하였다.

나. 운영방법

연도	대상	운영시간	강사
2011	1학년 전반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주당 1시간)	창원대 무용학과 소속 강사(1명)
2012	1, 2학년 전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지원 받음(2명)

■ Happy plus 3 – 사고력을 키우고 비전을 제시하는 책 읽는 학교 운영

가. 진로 선택을 위한 맞춤형 독후 행사 : 입학사정관제와 연계한 책 읽는 학교 운영

- 독서골든벨 : 인문학필독서 10권을 선정하여 학년 말에 대회를 실시함
- 과학독서퀴즈대회 : 과학관련 필독서 10권 선정하여 학년말에 대회를 실시함
- English Book Review Contest : 2~3명이 한 팀이 되어, 영어원서를 읽고 책 내용을 분석하여 영어로 발표하는 행사로, 학년 말에 예선을 거쳐 본선 대회(10팀)를 실시함

나. '책 읽는 학교' 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교내 독서 · 논술 행사 실시

- '오늘의 리더(Reader)가 내일의 리더(Leader)가 된다.' 는 믿음을 바탕으로 책 읽는 학교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교내 행사를 실시함
- 교내논술대회, 한글날 기념 백일장, 독서인증제, 사제동행 독서 토론, 독후활동우수상 시상, 점심시간을 활용한 지식 시청, 교내 TIE(Television in Education) 대회 등

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 읽는 학교' 만들기

- 창원KBS '독서마라톤' 프로그램 참여
- 창원도서관 지원 도서관활용 프로그램 행사 참여



노래하는 학교-영어빈가부르기



운동하는 학교-발레교실



책 읽는 학교-Book Review Contest

부모님께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토요 스포츠 교실



박 기 대
사천 수양초등학교 교장

1. 아빠·엄마와 함께하는 토요 스포츠 교실 준비

‘아빠는 토요일 오전 집에서 늦잠을 주무신다. 엄마는 주중에 밀린 집안 일을 하느라 눈코뜰새 없이 바쁘시다. 나는 하고 싶었던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방에서 TV를 시청한다.’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되면서 토요일에 집에서 하는 일을 물어 보았더니 위와 같이 응답한 학생이 절반,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절반 쯤 되었다.

이에 본교에서는 가족 간 화목을 다지고, 아버지가 학교에 자주와 자녀, 친구들과 자주 접하면서 학교를 이해하고, 적극적 학교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토요일을 활용한 재능기부 스포츠 교실을 기획·실천하고 있다.

아빠·엄마가 가르치고, 학생과 함께 배우는 토요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 2007년 신설된 본교의 깨끗하고 잘 정돈된 교육 시설과 공군부대의 본교 스포츠 교실 운영을 위한 수영장 사용 협조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 재능 기부를 통한 토요 스포츠 교실 운영

▶ 학부모 재능 기부를 통한 토요 스포츠 교실 준비 과정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운영	프로그램 확정·안내	스포츠 교실 운영
- 2012년 2월 10일 - 토요일 학생 실태조사	- 2012년 2월 14일 - 학부모강사 모집 - 수영장 사용 협의	- 2012년 2월 16일 - 프로그램 확정 - 안내장발송	- 2012년 3월1일~ - 수영, 축구 교실 운영 - 지속적 학부모 참여 유도

▶ 토요 스포츠·방과후 교실 운영 현황

토요 스포츠 교실 운영 현황		토요 방과후 교실 운영 현황	
수영-학부모 3명, 학생 20명	탁구-학부모 2명, 학생 8명	독서-학생 9명	요리-학생 40명
축구-학부모 4명, 학생 12명	배드민턴-학부모 5명, 학생 14명	논술-학생 9명	미술-학생 10명, 무용-학생 28명

가. 자신만만 토요일 수영교실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나 평소 손쉽게 체험하기 어려운 수영을 토요일 스포츠 교실을 통하여 경험하고, 자신감과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수영장 이용에 있어 공군부대에서 방과후학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영레인을 따로 배정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와 긴밀한 기관 간 상호 유대 관계를 맺었으며, 수영에 특기가 있는 학부모를 수영강사로 초빙하여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1) 활동내용

- 5학년 박재원 학생 학부모 김현정씨를 수영강사로 초빙하여 재능 기부를 받음.
- 참여희망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토요일 오전 9시~11시까지 2시간 씩 교육하고 있음.
- 학생 개인 수영 실력과 학년에 따라 A반과 B반 2개반으로 구분하여 수업을 실시하였고, 자유형, 배영, 평영 중심의 수영영법 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나. 재미만점, 실력쑥쑥 토요일 축구 교실

공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아버지들과 축구에 흥미를 가진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축구 동호회를 조직하여 아버지들이 토요일, 일요일 아침 본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토요일 오전에 회원들이 학생들 축구 지도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신체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아버지들은 가족애를 키우고, 체력과 건강한 마음을 키우고 있다.

1) 활동내용

- 본교에 재학중인 남자 학부모 17명이 축구 동호회를 조직하여, 조기 축구를 하고, 오전 9시30분~11시까지 토요일 축구교실을 운영함.
- 3월 10일 12명의 학생, 4명의 학부모가 토요일 축구교실에 참여함.
- 축구 기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축구 규칙과 예절, 인성지도도 함께함.



3. 운영 성과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체육활동을 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애를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교육기부 확대로 학생들의 특기 신장과 교사와 학부모간의 상호 이해 및 본교의 교육력을 고양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학습장 쓰기로 자기주도적 학습력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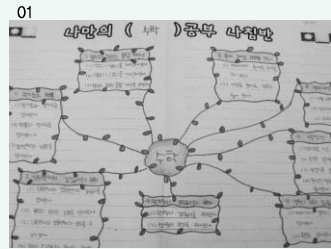


권 동 현

양산 삼량초등학교 교장 권동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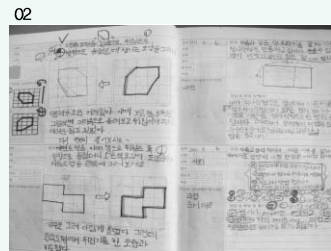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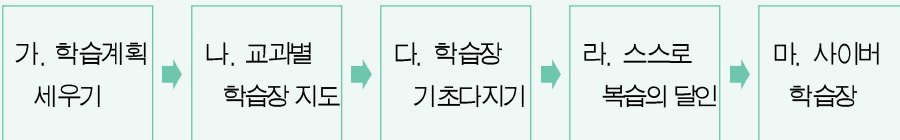
1. 학습장으로 학습하는 방법 익히기

한동안 학습장이라고 하면 주입식 교육이나 설명식 전달 학습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근래에 학습장(노트)이나 메모 등이 학습의 효과와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높이는 주요한 전략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교에서는 2009학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학습장 쓰기를 지도하여 학생들이 학습하는 방법을 스스로 익혀가도록 교육하고 있다.



2.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높이는 학습장 쓰기

〈삼량 학습장 쓰기의 단계〉



가. 학습계획세우기-나만의 학습 나침반

학기 초 교과별 학습계획세우기 활동을 통해 전체 학습내용과 구조를 파악하여 학습자의 메타인지를 높인다.

나. 교과별 학습장 지도

교육과정 편성 시 학기별로 학습계획세우기와 학습장 쓰는 방법에 대한 지도를 교과마다 2차시씩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다. 학습장 기초다지기

학습장 기초다지기 활동은 바른 자형 익히기부터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전략까지 스스로 학습장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학년별 발달특성에 따라 6차시씩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01 학습계획서
02 복습공책
03 학습장 쓰기



04



05

04 교사자료 전시회
05 학습장 전시회

〈사회과 학습장 쓰기 예시〉

▶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을 토의를 통해 결정하는 스스로 학습력 UP!

I. 우리 국토의 모습과 생활 (8/17)

3. 지형과 우리 생활

공부할 문제 중 지형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다른지는 설명할 수 있다.

계획 지형도 살펴보기 ⇒ 지형에 따른 생활 모습 표로 정리하기 ⇒ 관계 찾기

활동 1 ① 지형도 살펴보기 - **요약**
- 상강, 해안, 평야지대가 있다.

활동 2 ② 지형에 따른 생활 모습 **표, 비교**

지형	생활모습
상강지역	인업, 바닷재배, 약초 캐기
평야지역	벼농사, 공단 조성, 도시 발달
해안지역	어업, 양식업

활동 3 ③ 지형과 생활 모습과의 관계찾기 - **유추**

▶ 단원과 차시를 아는 것부터 메타인지 UP!

▶ 피드백을 통해 긍정적 학습동기와 태도 향상

아하! 우리 나라의 산지지역, 평야지역 되었다. 우리 양식은 평야

칭찬과 격려 학습내용을 표를 이용하여 잘 파악하고 있군요!

▶ 활동별 전략과 학습결과를 간단히 기록

▶ 학습내용과 전략에 대해 점검하고 조절하는 반성적 사고의 기록을 통해 나의 학습수준을 파악하는 메타인지 UP!

라. 스스로 복습의 달인

학습한 내용을 가정에서 스스로 복습하는 활동으로 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정착되어 학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

마. 사이버 학습장

학교 홈페이지에 사이버 학습장 사이트를 열어 다양한 학습주제에 따라 스스로 요약, 정리한 학습 데이터를 자유롭게 업로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함께 만들고 다듬어가는 학습장

학습장 쓰기는 지도하는 교사에게도, 써야하는 학생에게도, 지켜보는 학부모에게도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다. 그러나 학습과정, 학습전략, 학습반성과 격려가 녹아있는 삼량초의 학습장을 통해 더욱 연구하는 교사,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신뢰 주는 학부모로 결실을 맺고 있다. 2012학년도에도 삼량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고 다듬어가는 학습장 쓰기를 통해 미래사회를 주도할 능력있는 어린이를 육성하도록 힘껏 노력할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Student Teacher Parents-10-10-10 행복 다짐



배 상 휘
창원 삼계초등학교 교사

1. 출발, S·T·P 10-10-10 행복다짐!

초·중·고생 17만 명 ‘최근 학교폭력 경험’(2012.03.15), 초등생 8명 중 1명 ‘최근 1년 내 학교폭력 당해’(2012.03.14),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다음달부터 정부에서 지원’(2012.03.13), ‘학교폭력 신고 피해학생 보복폭행 무서워’(2012.03.12)

자고나면 ‘학교폭력’ 사례들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들이 꼬리를 물고 이슈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한 대처와 예방은 단위학교로부터 비롯되지 않으면 모래성을 쌓은 듯 허물어질 것이란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우리학교의 「S·T·P 10-10-10 행복다짐」!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함께 동참하여 ‘내가 먼저’란 생각으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행동 실천의 과정, 그 길을 같이 따라가 보자.

2. 함께 해요, S·T·P 10-10-10 행복다짐!

Student(학생), Teacher(교사), Parents(학부모)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S·T·P 행복다짐은 각각에 대해 지켜야 할 10계명을 실천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가. 학생들의 행복다짐 / S-10

학생들의 행복다짐은 기본적으로 10가지가 아닌 9가지를 정하여 제시하고 나머지 1가지는 학생들이 행복다짐 세부준칙 하나를 직접 정하여 왜 그렇게 다짐을 하였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며 실천의지를 다지도록 설계되었다.

매월 마지막 날에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반에서 행복다짐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이 S-10행복다짐은 우리학교의 ‘자람새 키움활동’이라는 포트폴리오에 수록이 되어 1년 동안 실천,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다.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Student Teacher Parents-10-10 행복 다짐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S-10 행복다짐

Ye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생님을 존경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2. 수업 시종이 울리기 2분 전 자기 자리에 앉는다. 3. 장애학생을 이해하고 도와준다. 4. 남의 물건을 소중하게 사용하며, 빌려쓰고 난 뒤에는 곧장 돌려준다. 5. _____
No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수업 중 휴대전화는 반드시 꺼둔다. 7. 사소한 장난이라도 친구가 싫어할 때에는 하지 않는다. 8. 친구에게 절대 욕을 하지 않는다. 9. 친구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절대 가하지 않는다. 10. 짱No, 따돌림No, 폭력No.

※ 5번째 다짐을 설정한 이유

나. 교사들의 행복다짐 / T-10

교사의 행복다짐 10계명은 ‘학생들에게 미소를 짓고, 학생을 부를 때 반드시 이름을 부르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 와 같이 학생중심의 행복다짐이다. 우리학교는 40학급이라는 대규모의 학교이다. 많은 학생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작은 부분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 책상위의 'T-10'을 매일 읽으며 학생들에게 고른 관심으로 편애하지 않으며, 대화를 할 때에는 학생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게 되었다.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T-10 행복다짐

1. 하루에 몇 번이든 학생과 인사를 한다.
 2. 학생들에게 미소를 짓는다.
 3. 학생을 부를 때 반드시 그 이름을 부른다.
- 하락-

다. 부모들의 행복다짐 / P-10

교육주체의 한 축을 이루는 학부모의 동참 없이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또한 불가능하므로 사전예방과 진단 성격을 강화시킨 'P-10'을 설계·실천하였다. 이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참고로 하여 우리학교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학부모의 관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학생이나 교사에 비해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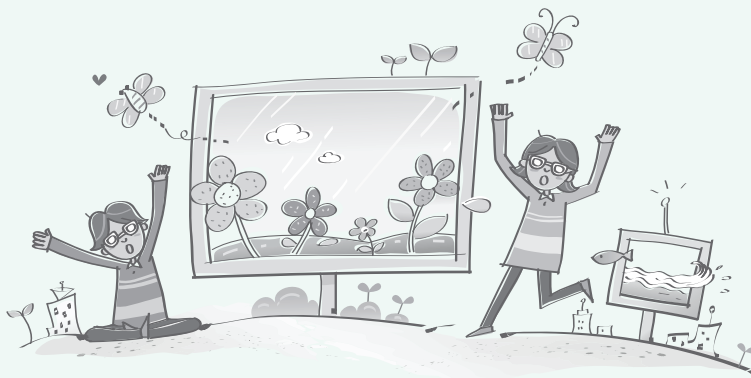
의 인식정도는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학교와 학생, 그리고 부모가 함께 노력할 때 학교폭력은 사라질 것이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가 조성될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P-10 행복다짐

1. 자녀에게 친구를 놀리거나 소외시키고 괴롭히는 행동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2. 등교하기 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고 매일 아침 인사 한다.
-하락-

3. STP-10-10-10 행복다짐, 그 행복한 도착을 기대하며!

본교에서 처음으로 인성부장을 맡으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접하게 되었다. 정부에서 교육청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오고 그 일환으로 실시되는 여러 가지 행사들, 예를 들면 교문 앞 현수막, 학교폭력 안내장, 친구사랑 주간운영, 학교폭력 추방의 날 행사 운영 등 말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학기가 시작 된 지 며칠 안된 지금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계획되고 실행 될 것임을 보더라도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대처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교사·학부모가 하나의 마음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만이 비로소 학교폭력이 사라져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 것임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학교의 ‘S·T·P 10-10-10’은 그 행복한 도착을 꿈꾸며 열심히 실천 중이다.



사시사철 생태체험, 자연이 교실이자 놀이터인 창원 감천초



박 영 인
창원 감천초등학교 교사

1. 자연은 아이들의 놀이터다

생태교육의 중요성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생태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의 본성을 지닌 아이와 자연이 신체적, 정신적 교류와 교감을 이루어 인간과 자연의 공생, 인간과 인간의 상생의 지혜를 터득하고 실천하려는 자연 친화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 자연생태학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교는 도심 속의 농·산촌 지역에 자리 잡은 지리적 조건으로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주변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탐구·창의성 및 인성함양이라는 시대적 교육의 방향에 부응하기 위하여 체험중심 자연생태학습을 학교특색으로 선정하여 8년째 운영하고 있다.

2. 자연은 훌륭한 교재이다

가. 창의적 체험활동 도서 선정

체험중심 자연생태학습을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해 1~2학년은 ‘초록마을’ 3~4학년 ‘초록나라’ 5~6학년 ‘초록세상’을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재구성

창의적 체험활동 교재 내용을 6가지 영역(생명, 풀·꽃·나무, 자연놀이, 습지·수서생물, 동물, 환경)별로 분석하고, 영역별 지도해야 할 체험활동주제를 선정하여 월별 학교 환경과 여건에 맞게 교육내용을 재구성하였다.

교육과정의 주제별 재구성

영역	주제	교재 관련 내용
생명	학교 주위 생명관찰	자연 체험활동, 루페로 들여다보는 겨울눈의 비밀, 새싹 관찰, 씨앗의 변신과 번식의 방법, 텃밭 가꾸기
풀, 꽃, 나무	풀, 꽃, 나무 관찰	봄꽃 찾아 이름 붙이기, 봄나물 뜯기, 잎으로 그림 그리기, 꽃의 유래, 풀꽃 염서 만들기, OHP를 이용한 잎맥 세밀화 그리기, 나뭇잎과 낙엽으로 꾸미기, 나무, 풀꽃 물오름 체험하기

자연 놀이	천연염색	자연에서 색 찾기, 손수건 물들이기, 옷에 포도물들이기, 솔방울 관찰, 솔방울 싸움하기, 나무 목걸이 만들기, 광려천 물놀이, 풀피리 만들어 불기
습지, 수서생물	수서생물 관찰 우포늪 견학	습지 관찰, 습지의 동·식물 흉내 내기, 물고기 관찰 수서생물 관찰, 습지 동·식물의 역할, 개구리 알 관찰
곤충과 새, 동물	나무를 이용하여 곤충 만들기, 철새 관찰	곤충 관찰하기, 정원을 이용하는 새들의 이야기, 곤충의 위장술, 멸종위기의 곤충, 나무로 나비, 달팽이, 잡자리, 부엉이 만들기, 겨울철새 살펴보기, 우포늪 견학
환경	환경보호	마산 하수 종말 처리장과 창원 소각장 및 재활용 단지 견학 재활용품으로 만들기

3. 자연은 아이들의 탐구심을 길러준다

철저한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재구성한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직접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자연 속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다양한 자연현상을 궁금해하며, 사고력과 탐구심을 키워나간다.

〈표-1〉 월별 자연 생태학습 활동 계획

월	체험학습 내용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속 생물들의 활동 살펴보기 • 개울 주변에 사는 식물 관찰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려천에는 누가 살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서곤충과 하천의 모습 관찰하기 • 생태지도 만들기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빙글 돌리는 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변화의 원인 탐구하기 •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방법 살펴보기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려천에 물놀이 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지폴 통발 만들기 • 물고기로 알아보는 물 맑기 관찰 (동사리, 피라미, 모래무지)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손으로 만든 태양열 조리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기 • 태양열 조리기구 만들기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 체험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매가 달린 나무 찾아보기(도토리, 감, 밤) • 씨앗 세밀화 엮서 만들기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숲의 겨울준비 관찰하기 (잎과 꽃이 겨울눈 속에 숨었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 학교 화단에 새싹이 있어요! • 식물들의 겨울준비 과정 관찰

4. 자연은 훌륭한 선생님이다

가. 학생들의 자연관찰 및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에 대한 탐구·창의력이 향상되었다.
나. 즐겁고 신나는 체험 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 함양 및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신장되었다.

다. 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환경 보전 의식을 높였다.

라. 학생과 학부모, 지역민의 학교홍보와 입소문, 언론 보도를 통해 자연생태학습의 긍정적인 효과와 활동이 주변에 알려져 폐교위기를 극복하고 학기 중에도 전학 문의가 늘고, 실제 전입생이 늘어 관내 6학년 학교 중 유일하게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학교가 되었다.

〈생태체험학습 활동모습〉



아토피 Zero 보건교육으로 소규모학교 살리기



김 나 래
함양 금반초등학교 교사

1. 들어가며

본교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경상남도 교육감 지정 하에 ‘아토피 Zero 공립형 보건학교’를 운영하였다. 산업화에 따른 각종 공해로 인해 환경성 질환으로 불리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가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교는 농촌의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 친환경적인 교육시설을 마련하고,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여 존폐의 위기에 놓인 농촌 소규모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두 가지 필요성에 의해 시범학교를 운영하였다.

시범학교 운영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아토피 보건학교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아토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시설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2. 아토피 학생들을 위한 특색 교육활동

본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토피 학생들을 위한 특색 교육활동으로는 크게 아토피 보건학교를 위한 환경 조성, 아토피 피부염 관리 프로그램, 건강 상담 및 학생 관리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 아토피 보건학교를 위한 환경 조성



〈목욕실〉



〈공기정화식물〉



〈가습기 겸 공기정화기〉

아토피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교실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학교내부벽면을 낙엽송 자재를 이용하여 리모델링하였으며 교실에 온·습도계를 설치하여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공기 정화능력이 탁월한 식물을 구입하여 교실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분필 가루가 날리지 않는 무공해 칠판으로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아토피 때문에 본교로 전입한 학생들을 위하여 교과부에서 지원한 원룸식 숙소인 ‘도담채’(12실)를 건립하였으며, 아토피가 심한 학생들이 보습을 위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목욕실을 마련하였다.

또한 학교 주변 텃밭을 임대하여 친환경 생태 텃밭을 가꾸어 급식에 직접 이용하기도 하며, 아토피 학생들에게 알러지가 있는 음식에 대하여 대체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나. 아토피 피부염 관리프로그램 적용



〈숲속 트래킹〉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집단상담〉



〈친환경생태텃밭〉



〈자연치유교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학생들은 피부염 증상을 앓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다. 본교에서는 이런 아토피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재량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함양군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아토피 학생들이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고 아토피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기르며, 일반 학생들도 아토피 학생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고 아토피 학생들과 하나가 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함양 국유림 관리소와도 연계하여 숲속에서의 자연 체험 활동인 숲속 트래킹을 통해 학생들의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도 해소하여 아토피 악화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일과 중 아침활동,

중간활동의 틈새시간을 활용하여 웃음요가, 맨발 걷기, 코스별 건강 달리기를 실시하여 체력을 기르고 면역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친환경 생태텃밭 가꾸기, 금반GPS(Greeting, Praising, Smile)운동, 문화예술 체험 등으로 아토피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 건강 상담 및 학생관리



〈학부모 간담회〉



〈전문의 공개문진〉

본교 도담체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 아토피 학생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 월 1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아토피 관련 최근 의료 동향과 아토피 관리 방법 연수, 아토피 학생의 증세 변화에 대한 정보교환 및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아토피 증상 관리를 위하여 보건 교사가 치료일지를 작성하여 학부모 간담회 및 개별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본교의 큰 자랑거리이다. 아토피 학생들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얻기 위해 아토피 관련 서적을 출간하고 아토피 관련 의료 활동에 힘쓰고 있는 프리허그 단체를 초빙하여 공개검진도 실시하고 있다.

3. 마치며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시설 개선 및 다양한 교육활동에 힘쓴 결과, 18명에 불과하던 학생 수가 40여명으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아토피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문화경험 및 체험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토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상담활동, 다양한 체험활동이 학교 교육과정에 정착되고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직원과 학부모가 힘을 합해 노력하고 있다.

'We can do!'

위풍당당 합창부, 소리를 모으다



김영현
경남은혜학교 교장

01



1. 들어서며

흔히들 정신지체, 정서장애, 자폐를 가진 학생들은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특수학교 교장을 하다보면 우리 학생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영역에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꼭 해야 되겠다는 신념 속에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찾게 되고 '한번 해보자'라고 다짐하면서 '피꼬리 합창단'을 만들게 되었다. 지난 해까지는 '나는 할 수 있다(I can do!)'에서 금년부터는 'We can do!'로 바꾸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속에 정신지체, 정서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피꼬리 합창단이 출발하게 되었다.

2. 처음 소리

햇빛이 하늘에서 내리쬐고 봄바람에 기분이 좋아지는 3월 오후, 아름다운 하모니 소리를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위풍도 당당한 피꼬리 합창부를 만날 수 있다. 학생들은 악보를 하나씩 들고 선생님의 지휘아래 아름다운 하모니가 흘러나온다.

우리 학생들이 음악을 좋아하고, 학교에서도 음악을 자주 들려주지만, 하모니로 구성된 노래 부르기가 절실하고 노래하는 학교 운동에 발맞추어 2011. 3월 피꼬리 합창부를 만들게 되었다.

학생들이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르는 일이 적기 때문에 노래를 할 수 있는 학생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중·고등학생의 교실에서 음악수업을 하며 음악을 좋아하고 합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하였다. 그 후 6교시에 학생들을 모아 태도, 발성을 세심히 심사하여 피꼬리 합창단 1기, 합창단원 20명이 모두 모아졌다.

처음 합창단을 준비할 때는 학생들이 친구들의 소리를 들으며 화음을 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조금씩 소리도 내고 친구들끼리 화음도 맞춰가는 것을 보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그마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02



01 학예회
02 행복한 음악회

3. 소리를 맞추며

이렇게 피꼬리 합창부가 창단된 후 매일 6교시마다 단원들이 모여 합창연습을 했다. 우선 학생들의 소리를 체크한 후 성부를 나누고 유명한 합창부 공연 동영상을 감상하며 합창부의 바른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갔다.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잘못된 노래습관을 고치고 바르게 소리 내는 방법을 배웠다. 또한 합창이다 보니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맞춰야 하는데 자신의 소리만 내느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겨를이 없었던 아이들은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한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연습과 함께 소리를 맞춰야 아름다운 하모니가 된다는 것을 학생들도 알았기 때문이다. 합창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면서 학생들은 합창단원이라는 자체에 자부심을 느끼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 심지어 가정에서도 음악을 틀어놓고 합창연습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합창부 연습을 하던 어느 날, 본교에서 ‘피꼬리 노래자랑’을 개최하게 되었다. 피꼬리 노래자랑은 동학년 별로 예선을 거친 학생들이 노래를 뽑내는 행사인데 그 행사에 특별공연으로 무대에 서게 된 것이다. 합창단원들은 무대에 선다는 말에 더욱더 열심히 연습하였고, ‘보리울의 여름’을 무대에서 불렀을 때 교직원과 학생들은 많은 박수로 학생들을 감싸 안았다.

4. 하모니를 즐기며

피꼬리 노래자랑도 끝이 나고, 학예회 연습을 하던 때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장애·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행복한 음악회’에서 공연해 달라는 제의가 들어왔다. 조금씩 발전하는 피꼬리 합창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학생들과 함께 의욕적으로 연습하며 무대를 준비했다.

음악회 당일이 되었을 때 이미 학생들은 멋진 옷을 입고 큰 무대에 선다는 자제만으로 기뻐하였다. 학생들은 리허설 한 번에 동선과 자리를 기억하였고 관중들과 눈을 마주치며 호흡하는 모습에 관람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관람을 오신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무대에서 자신 있게 노래를 부르고 친구들과 하모니를 만드는 것을 보시며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다. 또한 다른 학교 음악지도 교사는 리허설과 무대에서 아이들이 합창하는 모습을 처음 봤는데 가슴이 먹먹해지고 감동적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03



04



03 피꼬리 노래자랑
04 합창 연습

5. 2012년 다시 위풍당당!!

2012년 3월 19명의 합창단원이 6교시만 되면 악보파일을 하나씩 들고 반짝이는 눈빛을 가지고 음악실로 들어온다. 교사가 말하기도 전에 자신의 자리를 찾아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지난해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음도 모르고, 화음 맞추는 것을 어색해 하던 아이들은 조금씩 성장하여 이젠 멋있고 위풍도 당당한 합창부가 되었다. 올해에는 교내 공연뿐만 아니라 전국 대회에도 참여해볼 생각으로 열심히 화음을 만들고 있다.

학생들이 합창을 즐기는 이유는 무대에 선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노래도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학생들이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목소리를 맞춰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아가야 할 사회 또한 자신의 일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좀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학생들이 무대에서 관중을 보며 같이 호흡했듯 사회에 나가서도 주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한다.

끝으로 교장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윤유미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우리 학생들은 'I can do!' 가 아닌 'We can do!' 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올레온에어를 통한 인터넷 생방송 활용 방법



최재용

한국소셜미디어교육원 원장

1. 들어가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식을 중계했던 인터넷 생방송이 바로 올레온에어 인터넷 방송이다. 올레온에어는 오픈아이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아이디) 하나로 로그인 가능하고,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동시 연동 서비스가 되며, 방송 녹화 및 생방송이 가능해 여러 면으로 활용이 가능한 매체로, 본고에서는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진 올레온에어를 통한 인터넷 생방송 활용 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 올레온에어로 들어가기



가. 올레온에어 웹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보이는 '오픈소셜 로그인' 을 클릭



나. 아이디와 비번 입력 후 어플리케이션 승인



다. 채널 주소 설정 및 기본 정보 입력 완료

라. 'SNS 추가 연동하기'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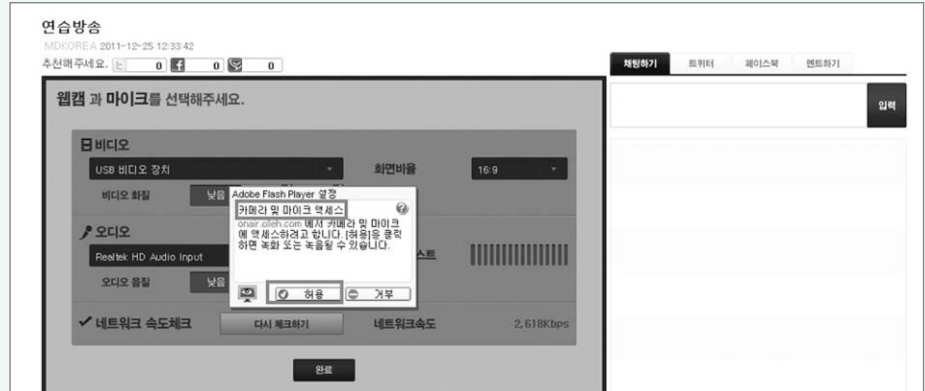
마. 올레온 에어 상단메뉴 확인

- 1) 방송하기 - 방송하기 메뉴를 통해 방송을 할 수 있다.
- 2) 생방송 - 실시간 생방송을 볼 수 있는 곳이다.
- 3) 녹화방송 - 지난 방송을 녹화방송 메뉴에서 볼 수 있다.
- 4) 나의방송 - 자신이 방송한 방송들을 모아볼 수 있는 메뉴이다.
- 5) 설정하기 - 연동에 대한 변경이나 업데이트 관련 설정을 관리한다.

3. 올레온에어에서 방송하기

가. 영상 제목에 방송 제목 쓰기/공개 여부 선택/CCL 사용여부, 녹화여부 체크

나. 마이크와 카메라 연결 관련 대화창이 나오면 ‘허용’ 선택



다. 비디오와 오디오 등을 원하는 것으로 선택하고 ‘완료’를 클릭



라. 화면에 영상이 나타나면 ‘방송시작’ 클릭

4. 나오며

인터넷 실시간 방송은 누구든 계정만 만들면 사용할 수 있다. 비용이 들지 않으며, 큰 어려움 없이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웹상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방송이 가능하다.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만, 그 중에 올레온에어와 유스트림을 들 수 있다. 최근 인터넷 방송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컴퓨터 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다양한 장치로 어디서든 방송이 가능하고 보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점점 더 확산되어질 것이다. 인터넷 실시간 생방송 웹들의 특징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과 연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올레온에어에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연동이 가능하며, 미국에서 만들어진 유스트림은 트위터와 페이스북뿐 아니라 유튜브 등과의 연동이 가능하므로, 손쉽게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활용할 수 있다.



교목이 우거진 학교



안 명 영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관

학교를 상징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으로 교화·교목·교표를 들 수 있다.

상징은 ‘심벌’이라고도 하는데 그리스어의 symbolon(符信)을 어원으로 하며, 어떤 것을 두 가지로 나누었을 때 각각의 소유자가 그것을 합쳐서 상호 신원을 확인한다는 뜻을 가진다. 무언가를 공유함으로써 동일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대상을 매개로 다른 것을 알게 하는 효과를 지닌 인간에게만 부여된 고도의 정신작용이다.

상징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상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다. 예컨대 잔디밭 돌레에 울타리가 쳐진 것은 ‘잔디밭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며, ‘배가 고프다’는 것 등과 같이 일상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도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이와 같은 상징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학교를 나타내는 교목을 정할 때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는 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전국적으로 ‘봉’에 관련되는 지명이 많은데, 예를 들어 비봉산 아래에 자리 잡은 학교는 교목으로 벽오동을 정하는 것은 어떨까! 봉황은 벽오동에서 둥지를 틀며, 몇십 년에 한번 꽃을 피워 열매 맺는 대나무 열매를 먹고, 아침이슬이 고인 맑은 샘물을 마시며 성인이 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새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수컷은 봉(鳳), 암컷을 황(凰)이라고 한다.

한 예로 진주 비봉산 아래 모(某) 남자고등학교 교문을 들어서면 강당이 보이고 높다란 위치에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조형물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조형물은 보통 새가 아니고 '봉'을 상징하고 있으며 이 학교 졸업생에 의하면 1972년도 전후 교표로서 두 마리 봉황을 서로 마주보게 새기고 중간 아래에 '고(高)'자를 넣어 마치 현재의 대통령 문장과 비슷하였다고 한다. 이 학교는 스토리텔링 소재가 풍부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벽오동을 심으면 어떨까!

다른 예로 하동은 녹차 산지로 유명하다. 쌍계사 입구 '신라 견당사 김대렴공 차시배지 추원비'가 있다. 안내문에 의하면 신라 흥덕왕 3년(서기 828년)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공이 차 종자를 가져오자 왕이 지리산에 심기를 명하였다. 이곳 장죽전은 '차의 최초 재배지'로서 오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화개에서 생산되는 차는 조정에 진상되었고 지금은 중국에서도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사철 푸른 녹차나무로 학교 울타리를 하고 녹차 밭을 조성하여 생산된 차로 다도실습을 한다면 직접 가꾸어 보며 맛 체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동에 소재하는 학교의 교목으로는 '녹차나무'로 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모든 학교가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교목을 선정하였을 것이다. 만약 교목이 교내 어디에도 없거나 눈이 가지 않는 곳에 있다면 교목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는 미성숙자를 대상으로 장래의 인재로 육성하는 곳이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뿌리 내리기 좋은 계절, 학생 키우듯 교목을 잘 가꾸어 온 교정이 교목으로 울창하기를 기대해 본다.



아지랑이



조 현 술

진주혜광학교 교장

살풀이
 무녀손길 옷자락이 흔들리나
 억압의 동토에서 울음 삼킨 저 몸짓들
 보일 듯
 숨겨진 한을 울울이 풀어낸다.

안으로 다지 어온 설움에 북받쳐서
 민등산 풀국새가 피울음을 토해내면
 온 누리
 잠든 혼령들
 깨어나서 술렁인다

긴 겨울
 들녘마다 짓밟힌 아픔들이
 온들녘 부들부들 살을 푸는 저 춤사위
 겨울밤
 휘파람으로 가지 끝에 지새웠다



학교는 인생의 첫발



주 현 미

창원 토월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언제나 이맘때면 꽃샘추위가 두어 번 찾아오고 곧 황사도 오는..... 그래도 따뜻한 봄입니다. 연년생 두 딸을 토월초등학교에 보내면서 이제 7년차 학부모입니다. 어느 공익광고에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학부모를 거치면서 성장하는 완성체랄까요? 저는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학부모에 있나 봅니다.

딱히 굳은 심지로 일관성있게 키우는 것 같지도 않고 여기저기 교육정보와 사춘기자녀의 양육정보에 기웃거리는 고민도 많고 아이 때문에 맘도 여러 번 상하는 그런 엄마입니다. 이런 제가 스스로도 잘 했다고 생각되는게 독서교육과 방과후학교입니다. 첫아이 입학하고 학교 도서관 사서 봉사를 2년 정도 하면서 좋은 그림책을 빌려다 주고 다른 사서 봉사 어머니들과 책이야기를 나누며 다같이 자녀를 잘 키우고자 했습니다.

아이들은 방학때 학교에서 주최하는 독서캠프에도 참가하고, 저는 독서연수도 받으면서 간단한 북아트도 해보고 좋은 강연을 들으며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보니 고맙게도 둘째아이가 책을 많이 좋아합니다. 신기하게 첫아이 독서교육에 신경을 썼는데 둘째아이가 저절로 되었습니다.

둘째아이 덕분에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 골든벨’에 학교 대표로 참가도 해 보았는데 좋은 성적으로 아이가 일본견학을 가는 큰 기쁨도 있었습니다.

골든벨 출전은 서로 도와가며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가슴에 많이 남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독서는 정말 좋습니다.

아이의 사고력과 이해력을 확장시켜주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신경쓰는 공부도 잘하게 도와줍니다. 첫아이와 둘째아이를 보면서 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딜가나 책 많이 읽히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여러 특기적성 활동을 해보고 소질이 있나 없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과학실험은 효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취학 전엔 사회센터에서 해보고 입학하고 나서는 4학년 때 했는데 정말 흥미있어 했습니다. 과학을 좋아하게 되고 꿈을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바이올린도 미술도 만들기도 방과후학교에서 저렴하게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즐겁고 취미가 되니 아이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기엔 효과적입니다. 학교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활을 풍성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요새 걱정하는 학교폭력에 늘 앓고 있는 곳이 아니라 찾아보면 내 아이의 인생의 첫발이 되는 고마운 곳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강 보 미

김해대동중학교 3학년 1반

현재 우리사회의 문제점 중 떠오르는 것은 모두가 알겠지만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친구사랑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로만 할 뿐 정작 실천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자신의 가벼운 입을 단속하여야 한다.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입이다. 조그만 다툼도 욕을 하여 몸싸움까지 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여 한 사람을 왕따로 만들고, 자신도 곤란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도 모두 말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솔직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가볍게 말을 했다가 걸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남의 험담과 욕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말을 참아야 한다. 정 말을 하고 싶거든 남을 칭찬하면 된다. 자신 자랑이 아닌 남을 칭찬해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칭찬해 줄 것이다. 그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아진다.

둘째,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한다. 솔직히 학교폭력도 앞에서 말한 가벼운 입놀림도 모두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다. 자신만 잘났고, 자신만 소중하니 남을 때리고 듣기 거북한 말도 서슴치 않게 하고는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기다리다 축복 속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사랑 받고 사는 똑같은 사람이다. 자신만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이다. 만약 우리가 남도 어느 집의 귀한 자식들인 것을 인식하고 그 아이도 나와 같이 소중한 사람이니 존중해 줘야지, 배려해줘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자신의 입과 마음만 잘 다스린다면, 자신의 마음과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즐겁게 우정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애무, 만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최 승 희

창원천광학교 교사

제목이 풍기는 에로틱한 때문에 묘한 상상에 빠지지 말기를. 엄마의 두 손이 아기의 발을 감싸고 있는 표지를 보게 된다면 잠시나마 그러한 상상에 빠졌던 스스로를 책망하게 될 테니 말이다.

이 책은 부모가 아이를 껴안는 것, 연인끼리 손을 잡는 것, 간호사가 환자의 몸을 어루만지는 것 등 사랑하는 사람과의 접촉에 대한 이야기다. 1950년대 해리 할로우는 원숭이 대리모 실험을 통해 접촉위안(touch comfort)이 정서발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바 있다. 새끼원숭이를 두 개의 원숭이 인형이 든 우리에 넣고 사육하는 실험으로, 하나는 철사로 만들어진 원숭이 인형이었고 또 하나는 부드러운 모포로 만들어진 원숭이 인형이었다. 이 사이에 젖병을 메달아 두었는데 새끼원숭이는 배가 고프을 때만 철사인형 쪽으로 몸을 젖혀 젖을 빨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모포인형에 몸을 비비며 시간을 보냈다. 이는 몸을 위해서 우유가 중요했던 것만큼이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어머니와의 신체 접촉이 중요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터치, 다시 말해 스킨십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또한 격리사육된 원숭이 실험을 통해 밝혀졌는데, 신체적 접촉을 박탈당한 새끼원숭이는 자신의 손가락을 빨거나 혹은 자신의 몸을 감싸 안거나 아니면 가볍게 두드리는 것과 같은 셀프터치(self-touch)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는 어머니를 향해 해야하는 행동이지만 그 대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거꾸로 자신을 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셀프 터치는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본래 심신의 밸런스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있는데, 이러한 항상성의 작용으로 불안과 스트레스로 붕괴된 감정의 밸런스를 회복하기 위해 셀프터치를 하는 것이다. 사실 가까운 사람이 만져주면 가장 진정효과가 높겠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때 우리는 자신의 몸을 만지는 행동을 통해 안정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불안할 때 스스로의 손을 비비고 맞잡고 있었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능으로 셀프터치를 한다. 누군가로부터 혼날 때 사람은 팔을 감싸고 몸을 뒤로 젖히면서 개인공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예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터치는 올바른 정서발달 외에도 또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의사소통이다. 누군가를 만지며 동시에 내 손이 상대방의 몸에 의해 만져지는 촉각 경험은 의사소통의 근본적인

향기나는 서가 ●●●

형태이다. 한 예로 엄마가 쓰다듬어주면 아기가 손을 뻗어 엄마를 만지려고 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이 의사소통의 시작인 것이다. 즉, 행동으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상태가 발전하면 서로 순서를 지켜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의사소통 능력으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내가 말할 순서에 말하지 않거나 남이 말해야 할 순서에 나서서 말하는 사람은 어릴 적 스킨십의 발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피부 접촉이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생리학적으로 보면 ‘피부는 드러난 뇌’이기 때문이다. 피부는 발생학적으로 뇌나 중추신경계와 똑같이 외배엽으로부터 형성되었고, 피부의 넓은 면적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지각한다. 피부가 받아들이는 자극은 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어 결국 몸과 마음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만지며 살아가고 있을까?

매일 뉴스에서 상상치도 못한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그때마다 우리는 그 주인공의 극악무도함에 혀를 내두를 뿐 왜 그 사람이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는지 아무도 헤아리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터치의 부족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다시 말해, 유아기 접촉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발달을 경험하지 못했던 탓이다. 그러한 접촉의 부족은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으로 이어지고 이는 한 사람에게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꼬리표를 달아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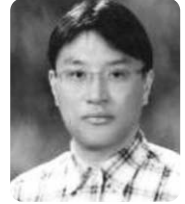
이러한 극단적인 예들 외에도 터치가 부족하면 사는 것도 재미가 없게 느껴진다고 한다. 그런데 더 문제는 현대에는 사는 게 재미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성희롱이나 체벌의 문제로 아주 사소한 신체 접촉조차도 점점 금지되고 있으니 인간 고유의 터치에 대한 욕구는 더욱 채워지기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연일 뉴스에서 들려오는 우울증으로 인한 연예인의 자살을 세로 토닉의 부족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럼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우리는 교사로서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접촉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사랑하는 이를 마음으로만 보듬지 말고 터치하며 살아가자. 추운 날 등교하는 아이들의 빨간 볼을 두 손으로 어루만져주고, 방학 내 아이들과 씨름했을 학부모님들의 손도 따뜻하게 잡아주자. 그래야 사랑인 것이다. 만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진 교사이지 않은가?



아! 아날로그 세레나데(Serenade)가 그립다...!!



정 윤 호
통영 목지중학교 교사

세레나데(Serenade)는 ‘17세기~18세기에 유럽에서 생겨난 성악곡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집 창가에서 부르는 사랑 고백의 노래’를 말한다. 프로포즈하는 세레나데를 받아들인다면 자기 방의 불을 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을 켜지 않는 것이었다. 세레나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매너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40만 쌍 이상이 결혼을 한다는데 고전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이를 듣고 결혼하는 쌍이 얼마나 될지? 요즘 청소년들이 즐기는 드라마나 영화 등 많은 장르에서는 세레나데가 주제로 사용되지만 예전처럼 아날로그 방식의 세레나데 사랑 고백 장면은 보기 드물다. 워낙 방음장치가 잘 된 유리창들이 나와서 예전처럼 낭만적인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듣고 싶어도 주변 환경이 도와주지 않고 또, 핸드폰 아니면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어 전자기기로 모든 걸 해결하는 삭막한 세상이 된지 오래다.

세레나데는 많은 음악가들이 즐겨 만들고 불렀던 대표적인 성악곡 장르의 하나로 오스트리아의 모차르트(W.A.Mozart), 슈베르트(Fr.Schubert), 이탈리아의 로시니(G.Rossini), 토스티(F.P.Tosti), 토셀리(Enrico Toselli) 등 많은 작곡가들이 사랑에 대하여 노래하였다. 먼저 모차르트는 성악곡을 기악곡으로 바꿔서 경쾌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다양한 주제가락을 사용하여 세레나데를 표현하였으며,



나 는 나 는 너를사랑해 나 는 너 를 정말사랑해

슈베르트의 피아노 왼손 반주부분을 보아도 한 여자를 사랑하는 아주 지고지순한 스타일로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던 슈베르트의 성격대로 세레나데를 표현하였다.



이탈리아의 로지니는 코믹한 그의 성격과는 다르게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Il Barbiere di Siviglia)>에서 세빌리아 지방의 바람둥이 알마비바 백작이 마을의 아름다운 처녀인 로지나에게 불러주는 세레나데인 ‘Ecco, ridente in cielo(여기, 하늘에서 웃어요)’로 멋진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에서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토스티는 ‘오라, 오 세레나타여’로 아주 적극적이고 빠른 리듬으로 즐겁고 유쾌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토셀리의 세레나데에서는 ‘아름다운 사랑 노래 들려온다’로 시작하는 가락이 탄식하듯이 잔잔하고 느린 빠르기로 애절한 사랑을 노래하였다.

이렇듯이 요즘 청소년들도 속도도 천천히, 감동적인 장면을 받고 나누며 상대방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운 신문지상에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붓물 터지듯이 이슈화되는 요즘 음악교사로서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를 음악수업시간에 들려주고 싶은 이유는 뭘까?



진정한 사랑의 영화, 로맨스 명작 ‘러브 어페어’



안 상 민
창원 남양초등학교 교사

우리는 많은 영화를 본다. 그 중에서 열 번을 보아도 질리지 않는 영화, 내 생애에 가장 감명깊은 영화가 있다. 특히 로맨스를 좋아하는 분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어 소개한다.

바로 1994년에 개봉한 ‘러브 어페어’이다. 이 영화는 1939년, 1957년, 그리고 1994년에 리메이크된,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로맨스영화이다. 워렌 비티(마이크 캄브릴)와 아네트 베닝(테리 맥케이) 주연을 한 영화인데 그들은 실제로도 부부사이였다.

마이크와 테리는 처음에는 둘 다 약혼자가 있었으나, 각자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우연히 비행기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 비행기 불시착 사고로 좀 더 오랜 시간을 함께 있게 되었는데, 마이크가 숙모가 살고 있는 집에 테리를 데리고 간다. 마이크의 숙모는 테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테리에게 ‘마이크는 바람둥이처럼 보이지만 진실로 자기가 원하는 상대를 만나면 아주 성실하고 깊은 사랑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말을 한다.



이 말이 테리의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고, 둘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각자 약혼자와 헤어진 후, 3개월 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연락없이 만나자.’는 약속

을 하고 헤어진다. 3개월 뒤, 테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가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리하여 약속한 장소에 갈 수 없게 된다.

이 영화의 백미는 마지막 후반부이다.

세월이 흐른 뒤, 테리와 마이크는 우연히 만나게 되고, 마이크는 테리의 주소를 알아내어 마지막으로 테리를 찾아간다. 마이크는 오래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만나기로 했던 날, 자정까지 테리를 기다렸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던 테리를 원망하는 듯, 마이크는 일부러 말을 빙빙 돌려가면서 테리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한다. 테리는 사고를 당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나타나지 못했지만 현재 자신의 초라한 상황을 사랑하는 마이크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

마이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테리를 만나면 타히티를 배경으로 한, 테리가 주인공인 그림을 주려고 했는데, 기다려도 테리가 오지 않았고 그 그림은 호텔 식당 주인이 가져가서 걸어 놓았다.

마이크는 불현 듯 '부자같이 보이지 않던 한 여인이 그림을 가져갔다,'는 말이 떠올라 두리번거리면서 무언가를 찾다가 안방에 걸려 있는 그 그림을 보게 되었고, 이로써 모든 오해와 의문이 풀리게 된다.



잔잔하고 아름다운 영상, 영화 상영 내내 주옥같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명대사와 절제미 가득한 영상미와 연출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이 어떻게 만나든 그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사랑했음이 중요한 인연이고 필연이다.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가 어떻게 만나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는가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의 의무감이 아닌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해 준 영화였다.

작품명 : 함께 바라보기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조건 없이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은...



황 수 희

- 현 창원유목초등학교 교사
- 한국미술협회, 창원미술협회
- 경남수채화협회, 초등미술교육 연구회
- 교원에능경진대회 한국화, 서양화 1등급
- 교원 작품전, 초미회전, MBC자연 기행 스케치전
- 경남 환경미술 협회전, 경남 수채화 협회전
- 남부 Watercolor Festival, 창원미술협회전

2012년 신학기,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정책

학교 폭력, 뿌리 뽑겠습니다!

- 전국에 17개의 117학교폭력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 가해학생을 즉시 출석정지,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교원은 엄중 조치
 - 학교폭력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복수담임제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확실히 보살핍니다.
 - 경찰동행 등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가해학생에게 다양한 재활치료 지원
- 체육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재로 기릅니다.
 - 모든 중학생들이 학교스포츠 클럽 활동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4시간의 체육수업을 받게 함
-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합니다.
 - 학생, 학부모와 교사가 직접 학교생활규칙을 제정함
-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협력합니다.
 - '밥상머리 교육 범국민 캠페인' 실시, 유해정보에 대한 심의 강화

주5일수업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 학교에서 체육·문화예술 등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원합니다.
 - 스포츠 강사와 학생 스포츠클럽 지원하여 토요일 스포츠데이를 활성화함
-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의 교육비 부담은 줄이겠습니다.
 - 토요일 돌봄교실 확대(2012년도 5,225교, 5만명)
 - 토요일 방과후학교 개설, 저소득층에게 방과후 자유수강권 확대 지급함 (2012년도 2,880억원, 60만명 지원)
- 지역사회·기업·대학, 정부부처와 연계하여 토요일 프로그램을 활성화합니다.
 - 기업·대학, 정부부처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
 - 미술관, 박물관 등 지역사회의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지원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됩니다!

-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육아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 모든 만5세아(2006.1.1~2006.12.31일생)에게 월 20만원의 교육비가 지급됩니다.
- 공통과정을 통해 교육의 질이 높아집니다.
 -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일원화

